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 봉축”

조계종, 유교법회·경허 만공 사상 조명 등 승풍 진작 큰 행보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 참된 봉축이자 불교 중흥의 당간지주를 세우는 길이다.”

조계종이 총무원장 지관스님 취임(2005년 10월 31일) 이후 줄곧 추진해온 ‘수행승가의 중흥’이란 최우선 과제를 이어가기 위해 봉축 기간에도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은 4월 22일, 조계종 승풍 진작의 결정적인 계기였던 ‘1941년 유교(遺敎)법회’를 67년만에 처음 조명하는데 이어, 5월 10일부터 전국 사찰에서 결계(結界)신고와 포살(布薩)법회를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또 덕송총림 수탁사와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4월 25일 ‘근대 한국 불교의 중흥조건 경허·만공의 선종과 법맥’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열어 수행승풍 진작을 거듭 강조했다.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유교법회 연찬회에서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유교법회는 1946년 가야총림, 1947년 봉암사 수행결사, 1954년 전국비구승대표자회의로 이어진 조계종단 중흥의 토대”라면서 “선배 큰스님들의 숭대한 발심과 대중승가를 위한 크나 큰 사랑과 실천을 본받아 수행승가의 전통을 여법히 계승하자”고 당부했다.

기초발전에 나선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선학인 창립, 선우공 제회 결사, 유교법회의 개최 등은 조계종 교단정화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었다”면서 “해방이후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당간 기치를 높이

든 봉암사결사대법회로 이어 온 대 발심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은 “유교법회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선양할 것이며 중생에게 회향할 것인지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암 스님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증득해 중생을 구제하는 ‘불조혜명의 계승’, △계율과 선을 함께 닦는 계선일지(戒禪一致)와 선율겸수(禪律兼修)의 종풍 선양, △부처님 유훈대로 살기 위한 <불유교경>의 봉행, △‘견성성불(見性成佛) 요의중생(饒益衆生)’이란 조계종지(曹溪宗旨)의 선양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1941년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서 거행된 유교법회는 일제강점기 비구스님들이 한국불교의 전통회복과 수행 본분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였다. 위기에 처한 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수행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만공, 한영, 상월, 영명, 채운, 청담, 운허, 동산 스님 등 4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 법회를 연 것이 계기가 되었다. 법회 참석자들은 당시 식민지 불교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출장 정진과 수행자의 청정성, 경건성, 위 의 회복을 대안으로 삼았다. 때문에 부처님의 유훈(유교경)과 율장(범망경), 선(만공스님의 선법문)을 강조하는 법회 일정을 진행했던 것이다.

청정 수행 가풍의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25일, 같은 곳에서 열린 ‘경허·만공 선종과 법맥’ 학술세미나에서도 이어졌다.



4월 22일 열린 ‘유교법회를 조명하는 연찬회’에서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사진=백재원 기자

이날 기초연설에 나선 설정 스님(덕송총림 수좌)은 “경허·만공 스님은 한말의 격동기 속에서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일신하고 간화선 중흥의 초석을 다진 대선지식”이라면서, “두 분 선사를 재조명해 오늘날 한국불교의 선풍(禪風)을 진작시키자”고 말했다.

오경후 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허·만공의 법맥과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이란 논문에서 “경허 스님은 선(禪)이 한국불교사와 모든 불학의 근본임을 확신하고, 쇠락한 선원을 창설하고, (1899년 해인사 정혜결사를 필두로) 수선결사(修禪結社)를 조직했다. 제자인 만공 스님은 선원체계를 확립한 선승이자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선학원 운동의 선봉에 선 개혁승이었다. 1931년 당시 지방 선원은 5개에 불과했지만 만공 스님 주도의 지방선원 확충으로 1935년에는 368명의 수좌들이 정진할 만큼 수행풍토가 크게 확장되었다”고 밝혔다.

1947년 봉암사 결사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유교법회’와 근현대 선종의 중흥조이자 부흥자로 평가받는 경허·만공의 선종을 재조명한 것은 조계종이 역점을 두고 있는 ‘종단 수행승풍 진작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선정아 사건’과 교구분사 주지 선출 때 불거진 잡음에 이어 최근 MBC

‘뉴스후’의 사찰 비리 보도로 실추된 종단의 기강을 바로 잡고, 수행과 포교라는 본분사를 강조하기 위한 법회로 평가된다. 조계종이 4월 25일, 올해 하안거 때부터 소속 1만 6,000여 스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신고하는 결계와 참회 법회인 포살을 전격 시행키로 한 것도 이러한 종풍 쇄신의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가에 ‘크게 한 번 죽어야 되살아난다’는 사중득활(死中得活)이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계 전체가 번뇌·망념을 털 비우고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을 수 있을 지, 사부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법정 스님 봄 정기법문

“한반도 대운하는 국토에 대한 모욕”

“현재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신성한 존재인 우리 국토에 대한 무례이고 모욕입니다.”

4월 20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덕조)에서 불교계 원로 법정 스님이 오랜만에 봄 정기법문 자리에 나섰다. 2000여명의 사부대중 앞에서 스님은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법문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맹비난했다.

또한 스님은 지병인 천식으로 투병하면서 느낀 것들을 법회 중 풀어놓기도 했다. 스님은 “아프고 나니가 새삼스레 나를 예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하루라도 열린 마음으로 살면서, 사는 게 즐겁고 기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법정 스님의 법문 요약.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 이는 하나의 기적이고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존귀한 것은 또 없습니다. 생명을 개체로 보면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겉모습은 다를 지라도 수많은 생명이 서로 어울려 생명의 연결고리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생태계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국토가 피를 흘리면서 신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우리 국토는 어떤 정치권력을 가지고 허물고 파괴할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국토는 오

랜 역사 속에서 조상대대로 이어 내려온 우리의 영혼이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신성한 땅입니다. 이런 땅에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자체가 우리 국토에 대한 무례이고 모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와 관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고속도로 · 고속철도가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미루어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강물을 이리저리 저리잡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흐르지 못하도록 채워놓고 제방을 쌓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강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범람을 일으켜 홍수 피해를 기중시킬 것이 뻔합니다.

(정부가) 개발 욕구에 불을 붙여 공론화시킴으로써 이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것은 지극히 부도덕한 일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기간, 이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민들을 속여 근소한 표차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비열한 처사입니다.

운하를 이용해 관광을 내세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는 것은 운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친절과 높은 물가, 언어소통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에 있는 관광자원도 활용 못하면서 또 운하를 만들어 관광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찍이 없었던 이런 무모한 공약사업이 이 땅에서 이뤄진다면 이는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무모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국토에 대해 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2면에 계속>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1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유대문 1010-7504-4521 (2층) 변호사
017-535-0685 (271번 변호사)
010-4488-3740 (2층) 변호사

순천 선암사 동종 보물 지정

문화재청,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등 4건 대상

문화재청(청장 이강무)은 4월 23일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순천 선암사 순치 14년명 동종’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

다고 발표했다. 보물 제1559호 지정된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은 모두 7권 7첩으로 구성됐다. 고려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종이 에 니로 사경한 것으로 사경 연

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560호 ‘도성도’는 어람용으로 추정되는 회화식 지도며, 보물 제1561호 ‘순천 선암사 순치 14년명 동종’은 조선시대 대표적 주종장인 김홍암이 1657년 주성한 것이다. 보물 제1562호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은 부석사에 전래되던 1684년작 괘불 도상을 기본으로 노사나 불을 첨가해 1745년 조성된 작품.

한편 조선전기 출판인쇄와 왕실 관련 불교사 연구에 중요자료로 평가되는 <지장보살본원경>과 15세기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등 5건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됐다. 조동섭 기자

선본사 갓바위 만불봉안대원탑 조성불사

선본사 갓바위는 신라소지왕 13년(서기 491)에 극달대사가 창건하고 다시 선덕여왕 7년(서기 638)에 의현대사께서 갓바위에 관봉약사여래불을 조성 봉안하심은 일체중생의 일체원을 발원코자 하심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시 그때의 의현스님께서 발원하심을 이어받아 모든 불자와 국민의 염원을 담은 만불봉안대원탑을 조성 봉안코자 하니 수희동참 바랍니다.

일체중생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천원도량 - 선본사 주지 합장

禪本寺

대구은행 : 078-12-001630
농협 : 725075-51-022189
국민은행 : 638101-04-14851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선본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현리 587
TEL: (053) 851-1868 ~ 9, 853-9877